

광주-부산, '비엔날레·민주정신 헌법수룩' 연대

강 시장, 부산 개막식 참석
양 도시 성공개최 공동홍보
내달 '미술축제주간'과 연계
부마항쟁·5월정신 수록 협력

광주와 부산이 양 도시의 비엔날레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정신 헌법전문수룩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6일 부산현대미술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4년 부산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함께했다.

'2024 부산비엔날레'는 부산현대미술관 이외에도 부산근현대역사관, 한성 1918, 초량재에서 8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65일간 열린다.

이날 개막식 참석은 지난 4월 '대한민

국 미술축제 공동선언'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양 도시의 비엔날레 개막식에 상호 방문, 공동홍보를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부산비엔날레 개막을 축하하는 한편 오는 9월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에도 나섰다.

강 시장은 "서울, 부산, 광주, 문체부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추진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부산비엔날레 개막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는 첫 자리이다"며 "부산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가 빛날 수 있도록 모두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오는 9월7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는 소리와 공간이 만나는 오페라 같은 전시를 통해 깊은 울림을 선물할 예정이다"며 "본전시 외에도 31개 국가·문화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이 준비되어 있다. 광주비엔날레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서울시, 부산시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동선언을 통해 주요 미술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로 통합해 성공 개최하기로 했다.

9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대한민국 미술축제 미술주간'을 운영,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아트위크 등 주요 미술행사를 연계해 추진한다.

광주비엔날레-부산비엔날레 통합입장권도 준비되어 있다. 통합입장권은 온라인(인터파크 티켓)에서 30% 할인된 가격인 2만3800원(정액 3만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 여행객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연계 KTX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구성된 KTX관광상품을 이용할 경우 광주비엔날레 개막 이후에도 사전예매 가격인 1만5000원(정액 1만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제15회 광주비엔

날레 '판소리·모두의 울림'(Pansori:the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은 오는 9월7일부터 12월1일까지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 양림동 일대에서 개최된다.

강 시장은 이날 양 도시 민주운동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부마민주항쟁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주역사 계승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민주역사 연대를 강화하고, 헌법전문 수록 공동목표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이다.

강 시장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새기는 것은 누구도 이를 부정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공식화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다"며 "은 국민이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배우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부마와 5·18은 시기적 선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역사적인 민주주의 운동의 분수령인 만큼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자"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넋기림마당(추념의장)에서 부마항쟁희생자들을 참배했다. 이후 부산민주공원상설전시실, 추모의벽 등을 찾아 민주열사의 정신과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겼다.

광주시는 그동안 5·18정신 헌법전문수룩을 위해 여러 차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대구 2·28민주운동, 6월민주항쟁 등 민주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광주-전남-전북은 호남권 민주역사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는 한편 지난 5월에는 제주도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제주4·3-광주5·18 평화·인권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ha.no@jnilbo.com

안도걸 "국가 재정운용 비상등"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사진)은 18일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4000억원에 달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규모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 확대를 통해 무리한 재정 집행이 적자 규모를 키운 것"이라며 "하반기 내수 침체 확대 시 재정 적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국세채납부에 대한 환수 노력,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국세감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반기 '상고하저' 흐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려막기식 파행적 재정집행을 멈추고 세수 확보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문수 "지역간 의료 격차 심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18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10만 명당 필수 의료 전공의사수' 차이가 지난 2019년 2분기 1.8명에서 올해 2분기 4.9명으로 2.7배 늘어났다"며 "지역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수도권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수'는 47.1명으로, 2019년 2분기보다 6.2명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42.2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3.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통한 체계적인 지역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6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전남도, '화합·상생' DJ 서거 15주기 추모

강 시장, 추모식 참석·묘역 참배
김 지사, 목포서 DJ 정신 기려

광주시와 전남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의와 민주, 인권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김 대통령의 뜻을 되새겼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

은 우원식 국회의장 추모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추모사, 추모영상, 추모노래, 회고록 헌정식 및 헌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추모식이 끝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로 이동, 헌화·분향했다.

강 시장은 추모식 전날인 17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음악회 '미래를 향하여'와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탄생 100주년 기념 드라마 콘서트 '평화의 별, 통일의 강-인동초 사랑' 공연에도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되새겼다.

강 시장은 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강원국 작가(전 대통령 연설행정관)와 함께 방송에 출연, '시대를 이끈 DJ정신, 그리고 후배들에게 남긴 숙제'에 대해 특별대담을 했다.

전남도도 지난 16일 목포 김대중노벨 평화상기념관에서 김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의 회 이광일 부의장과 도의원, 김대중 전남

도교육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헌화, 추모사,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노벨평화상기념관화합의광장에 김 대통령의 사진과 어록을 미디어 타워를 통해 전시해 김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 관람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서거 15년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기후 변화, 지방소멸 등 새로운 위기까지 더해져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김 대통령의 화합과 상생, 통합과 공존의 정신을 다리 삼아 도민과 함께 이 위기의 강을 건너겠다"고 밝혔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필수 불가결"

정상회의 1주년 공동성명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반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인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년간 3국 협력의 성과를 짚고 안보·경제·기술 등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업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지난 1년간의 안보 협력 성과에 대해선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 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